



하루에 하나

2026.6.5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29.70원 (+13.30원)

KOSPI

8,639.41 (-162.08, -1.84%)

KOSDAQ

1,049.73 (+23.70, +2.31%)

국고채 10년 금리

4.229 (+0.09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FX Spotlight	달러-원 환율 급등, 무엇이 원화를 약하게 만드나 [전규연]
월간 하나채권	[6월] 글로벌 금리의 차별화가 시작됐다 [박준우]
중국 테마 전략	과창50 지수와 CXMT 상장 [김성은]

기업분석

제넥	역대 최대 매출 경신 중 [박종대]
피에스케이	모든 고객들이 Capex 상향 [김록호]
대상	1Q26 Re: 2분기까지 전년 베이스 부담 [심은주]
삼성E&A	가스(LNG)와 탄소중립을 위한 여정 [김승준]

산업분석 Weekly

통신 서비스/장비	이젠 무선통신장비주가 주도주입니다 [김홍식]
유틸리티	승자가 없어지는 전력시장 [유재선]
운송	전쟁의 끝이 보인다, 해운주에게는 기회의 장 [안도현]

글로벌리서치

Broadcom	높았던 기대치 [김록호]
----------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KT&G, 삼성증권, 에치에프알

2026년 6월 5일 | Global Asset Research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FX Spotlight

달러-원 환율 급등, 무엇이 원화를 약하게 만드나

지정학적 위험 확대와 미국 경제지표 호조를 감안해도 과도하게 절하된 원화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이 1,530원 안팎에서 움직이며 이란 전쟁이 격화됐던 3월 말(3/31 장중 고점 1,536.9원, 종가 1,530.1원)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고, 미국 JOLTS 구인건수, ADP 민간 고용 같은 노동시장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 달러가 강세를 시현한 점이 주요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여타 통화 대비 원화의 약세 폭이 크다.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면서 5월 중 원화는 미 달러 대비 1.8% 절하되며 주요 통화 중 약세 폭이 가장 컸으며, 6월 1~4일에도 1.4% 추가 절하됐다. 전쟁 발발 이후 주요 통화 중 원화의 절하 폭(5.8%)이 가장 큰 상황이다. 원화 실질실효환율 Z-스코어 값은 -2.3으로 평균에서 2.3 표준편차만큼 떨어져있어 일반적인 범위보다 상당 수준 절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외환당국이 과도한 쏠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해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됐다.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려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선행될 필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금리차 역전폭이 기존 125bp에서 75bp 내외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달러-원 환율의 점진적 하락 기조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14.9% → 20.8%)도 환율 안정 요인이다. 하지만 외환시장 방향성이 추세적으로 바뀌려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외국인 국내주식 자금 유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한 단계 낮아져야 달러-원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 전쟁 시작 전(2/27) 달러-원 환율은 1,439.7원이었다.

외국인 국내주식 매도세도 잦아들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20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 보유액은 1,304조원에서 2,91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보유 한도 초과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저조했을 공산이 크다. 미국 연방 세법에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적격투자회사(RIC) 지위를 유지하려면 단일 종목 비중이 25% 미만이어야 하며, 5% 이상 종목 합산이 총 자산 가치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리밸런싱 이후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토대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야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conomist 권규연 kychun@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재부각되는 미국 관세 부과 이슈와 대미 직접투자 영향도 고려

한편 하반기에도 달러-원 환율의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의 대 주요국 관세 재부과와 대미 투자로 인한 미 달러 유출에 기인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 영국 등에 10%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원천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국가(한국, 중국, 일본 등)의 제품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부과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10%가 7월 24일 만료되므로, 해당 시점을 전후로 신규 관세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번 법안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품목별로 접근하지 않고 60개국을 묶어서 법안을 제시한 만큼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은 추후에 전개될 수 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대미 직접투자도 구조적으로 달러-원 환율을 높게 유지시키는 요소다.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CHIPS Act, IRA 등으로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도 6월 18일에 출범한다. 대미 직접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미 달러의 국내 공급 유인이 줄어들고 있어 달러-원 환율은 하락 폭이 제한되며 하반기에도 1,4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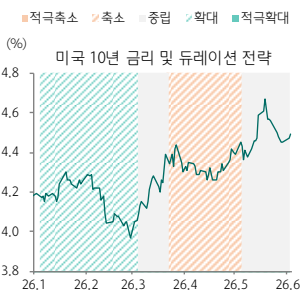
2026년 6월 4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	□
한국	■	●	□

주: 최근 변경은 5월 28일, ●는 직전 전망



월간 하나채권

[6월] 글로벌 금리의 차별화가 시작됐다

- ‘성장’이 견조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금리차 확대. 대표적으로 한국과 독일은 모두 통화정책이 긴축 모드로 전환됐으나, AI 노출도 차이 등에 한-독 10년 금리차는 확대
- 연내 미국 동결, 한국 7, 10월 인상 전망. 국채 투자의견 미국 ‘중립’, 한국 ‘축소’ 유지

Monthly Viewpoint: 성장 차이가 금리 차이로

글로벌 금리의 방향성은 동조화 현상이 강했으나, 3월 이후 주요국 금리의 변동 ‘폭’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10년은 70bp 가까이 오른 반면, 미국은 50~60bp, 독일은 30~40bp 수준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이 아닌 ‘성장’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란 사태 이후 기업 심리지수를 비교하면 한국과 미국은 상승하는 반면 독일과 호주는 둔화되고 있다. AI 노출도, 통화긴축 강도에 따라 성장 전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AI 수혜가 성장 전망을 높이는 반면 독일은 AI 수혜가 제한적이고 통화정책 긴축까지 가세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

지금은 유가에 연동되는 금리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별 성장세에 따라 스프레드는 방향성이 보다 분명할 것이다. 미국, 한국은 금리 상승, 독일, 호주는 금리 하락 및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 하단이 높아지는 배경

- 1) 매크로 - 유가 충격에도 기업 활동은 활발
- 2) 통화정책 - 위시는 인상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 3) 채권시장 - 유가 안정 기대에도 투자의견은 중립

한국: 글로벌 아웃라이어

- 1) 매크로 - 지겹지만 매년 새로운 반도체 호황
- 2) 통화정책 - 수요측 인플레이션을 인정한 순간
- 3) 채권시장 - 끔찍한 매크로 환경 지속

투자 전략 및 금리 전망 (p. 16)

- 1) 국채 투자의견 - 미국 ‘중립’ (5/6 제시), 한국 ‘축소’ (5/28 제시) 유지
- 2) 금리 전망 - 미국 연내 동결, 한국 연내 7, 10월 및 내년 1월 인상 전망. 연말 미국, 한국 10년 금리는 각 4.60%, 4.35% 전망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2026년 6월 5일 | Global Asset Research

China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국 테마 전략

과창50 지수와 CXMT 상장

중국 증시 과창판 IPO 활성화

최근 중국 과창판(STAR) IPO 관련 뉴스가 잇따라 발표되며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CXMT(DRAM), Unitree(휴머노이드 로봇), CIQTEK(양자기술), Trinomab(바이오) 등 주요 첨단기술 기업들이 과창판 상장을 대기하고 있다. 중국 과창판이 핵심 테크 기업들의 대표 상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1+6' 제도 개혁이 있다. 해당 제도는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거나 상업화 전망이 우수한 기업이 자본시장에 원활히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5년 초 시행 이후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잇따르고 있으며 상장 심사 절차 역시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CXMT는 지난해 12월 30일 상장 신청 이후 올해 5월 27일 심사 통과까지 단 5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CXMT 상장에 따른 중국 반도체 산업 낙수효과

현재 CXMT는 증감회 보고까지 마무리한 상황으로, 6월 내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CXMT의 상장은 궁극적으로 과창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창판은 상장 이후 가격제한폭 측면에서 중국 본토 메인보드 대비 기술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유연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상장 후 첫 5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5월 27일 상장한 창진광자(희토류 도핑 광섬유를 핵심 제품으로 하는 중국 대표 특수 광섬유 기업)는 장중 1,580% 이상 급등하며 올해 A주 시장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과창판은 국내 시장과 달리 신규 상장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기까지 최소 3개월(초대형 특례 적용 시)에서 최대 1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의 상승세가 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CXMT의 상장은 단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흡수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CXMT 상장 이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낙수효과'이다. CXMT는 295억 위안 규모의 IPO 조달 자금 가운데 약 130억 위안을 DRAM 기술 고도화에, 90억 위안을 HBM-PIM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투자가 국산 반도체 장비 및 소재 발주 확대와 연결되며, AMEC, Piotech 등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업은 과창50의 핵심 구성 종목인 만큼, 관련 수혜가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며 과창50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CXMT의 과창50 편입 시점

CXMT는 업계 선도적 지위와 우수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상장 이후 대형주 특례를 적용받아 3개월 내 과창5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연간 1,000억 위안 규모의 매출 기반, 가파르고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성숙한 양산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수에 견고한 실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CXMT 편입에 따라 과창50 지수 전체의 수익성



중국 테마 전략 김성은
seongeun@hanafn.com
중국/신중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이 크게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 지표 역시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시장 내 고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과창50 지수는 반도체 산업 비중이 약 77%로 매우 높은 구조이다. 칩 제조, 반도체 장비, 전자 소재, 컴퓨팅 하드웨어 등 다양한 세부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나, 메모리 웨이퍼 원천 제조를 담당하는 핵심 IDM 기업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CXMT는 중국 내 DRAM 양산에 성공한 유일한 대형 기업이자 글로벌 선도권 진입에 성공한 메모리 기업으로서, 이러한 밸류체인상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향후 CXMT가 지수에 편입될 경우 과창50 내 반도체 산업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과창50이 추구하는 '하드 테크' 중심의 산업 정체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CXMT 상장 이후 일정 시차를 거쳐 과창50 지수의 리레이팅과 함께 관련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6년 06월 05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

현재주가(6.04) 23,4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49.73
52주 최고/최저(원)	42,600/15,920
시가총액(십억원)	186.9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7,968.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58.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0
외국인지분율(%)	4.97
주요주주 지분율(%)	
솔브레인홀딩스	34.55

Consensus Data

	2027	2028
매출액(십억원)	126	N/A
영업이익(십억원)	28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2,911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1	28	50	78
영업이익	(3)	(4)	6	15
세전이익	(3)	(4)	6	15
순이익	(3)	(4)	8	19
EPS	(477)	(630)	1,015	2,370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133.5
PER	(9.2)	(5.7)	22.6	7.0
PBR	1.6	1.7	7.2	3.0
EV/EBITDA	0.0	0.0	24.5	7.1
ROE	(20.9)	(38.2)	34.1	46.0
BPS	2,730	2,099	3,177	5,548
DPS	0	0	0	0

Analyst 박종대 forsword@hanafn.com

제닉 (123330)**역대 최대 매출 경신 중****하이드로겔 글로벌 수요 증가 최대 수혜 제닉**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글로벌 시트마스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수요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 이는 수출 실적이 입증하고 있다. 1분기 마스크팩 수출은 YoY 59% 증가했으며, 2분기 수출은 YoY 70%를 넘어서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유통업체들의 입점 수요와 국내외 브랜드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화장품 ODM 업체는 국내에서 5~6개에 불과하며, 가장 높은 수익성으로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제닉이다.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불구 수익성 저하로 투자심리 악화

그래서, 1분기 제닉의 매출은 상당히 좋았다. 연결 매출은 YoY 65% 증가한 29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애초 기대치를 훨씬 못미치는 12%에 그치면서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밀려드는 주문에 초과근무가 상당히 많았고, H사 신제품 출시 초반 수율이 올라오지 않아 원가율은 81%까지 상승했다. 전년도 평균 원가율 71%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매출 400억원 내외까지 증가할 전망

다행히 2분기 들어 수율은 상당히 잡혔고, 생산 라인을 1분기 8개에서 2분기 11개로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매출은 수출 증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1% 성장한 396억원, 영업이익은 76억원(YoY 39%, OPM 19.2%)에 이를 전망이다. 5월까지 매출이 이미 1분기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7.1배로 i) 급격한 글로벌 수요 확대와 ii) 하이드로겔 전문 ODM 업체로서 높은 기술 진입 장벽, iii) 경쟁업체 대비 우월한 수익 구조 등을 감안하면 현저한 저평가 상태다.

2026년 6월 5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160,000원(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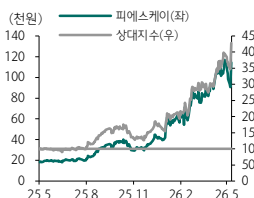
현재주가(6.04) 114,4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49.73
52주 최고/최저(원)	116,900/18,180
시가총액(십억원)	3,313.8
시가총액비중(%)	0.56
발행주식수(천주)	28,966.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15.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6.9
외국인지분율(%)	27.51
주요주주 지분율(%)	
피에스케이홀딩스 외 10인	32.84
국민연금공단	8.1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31.1	775.9
영업이익(십억원)	154.3	195.3
순이익(십억원)	127.7	162.6
EPS(원)	4,348	5,615
BPS(원)	22,502	27,897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98.1	457.2	660.9	755.5
영업이익	83.9	88.5	183.6	224.1
세전이익	97.4	92.5	189.6	228.7
순이익	79.1	78.5	157.3	189.7
EPS	2,732	2,712	5,430	6,550
증감율	50.69	(0.73)	100.22	20.63
PER	6.04	13.61	16.69	13.83
PBR	1.01	1.98	3.84	3.08
EV/EBITDA	2.94	8.67	11.81	9.14
ROE	18.31	15.54	25.74	24.70
BPS	16,285	18,606	23,585	29,455
DPS	400	680	680	680



Analyst 김록호 rookim@hanafn.com
RA 김영규 kug1019@hanafn.com

피에스케이 (319660)**모든 고객들이 Capex 상향****2Q26 Preview: 1분기의 연장선. 안정적 실적 기대**

피에스케이의 26년 2분기 매출액은 1,622억원(YoY +50%, QoQ +4%), 영업이익은 502억원(YoY +144%, QoQ +6%)으로 전망한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 투자 및 1C나노 전환 투자 및 Micron의 투자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화권 업체들의 투자는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고객사향 매출액도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어 고객사별 비중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26년 1분기에 예상보다 양호한 탑라인을 기반으로 높은 수익성을 시현한 바 있는데, 해당 흐름이 2분기에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영업이익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836억원 전망

2026년 매출액은 6,609억원, 영업이익은 1,83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5%, 107% 증가할 전망이다. 26년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매분기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외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중화권 고객사 및 Intel의 투자 재개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국내 고객사들이 2027년 집행할 투자를 일부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중화권 메모리 업체의 경우 상장일이 확정되면서, 하반기에 적극적인 증설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고객사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평균판매단가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에도 기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대 요인이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26년 1분기 영업이익률 30%를 달성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수익성을 이미 입증한 만큼 가시성 높은 실적이 매력적이라 판단한다.

전공정 내 최선호주 종목으로 유지

피에스케이에 대한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60,000원으로 상향한다. 2026년, 2027년 EPS를 기존대비 각각 27%, 23% 상향했기 때문이다. 26년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높은 수익성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모리 및 파운드리 업체들의 투자는 2026년보다 2027년에 본격화된다. 2027년에는 국내외 메모리 3사의 신규 Fab이 오픈되고, CXMT는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의욕적인 증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파운드리 영역에서도 삼성전자와 Intel의 신규 공장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7년과 2028년 장비 투자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개년간 외형 성장 가시성이 높은 가운데, 기존대비 수익성 개선을 확인시켜 준 피에스케이를 테스, 브이엠과 함께 전공정 장비 업체 최선호주로 유지한다.

2026년 6월 5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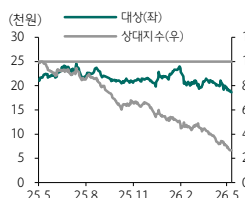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35,000원
현재주가(6.04) 18,61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639.41
52주 최고/최저(원)	24,600/18,610
시가총액(십억원)	644.8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34,64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3.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3
외국인지분율(%)	16.46
주요주주 지분율(%)	
대상홀딩스 외 3인	43.72
국민연금공단	11.0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477.0	4,658.3
영업이익(십억원)	183.3	204.8
순이익(십억원)	96.0	106.0
EPS(원)	2,696	2,990
BPS(원)	31,484	33,539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255.1	4,401.3	4,443.4	4,580.5
영업이익	176.9	169.3	191.9	202.8
세전이익	122.4	(268.4)	141.8	155.5
순이익	95.2	(304.2)	100.1	112.0
EPS	2,643	(8,447)	2,779	3,109
증감율	41.94	적전	흑전	11.87
PER	7.26	(2.49)	6.83	6.10
PBR	0.49	0.71	0.60	0.56
EV/EBITDA	4.59	4.61	3.92	3.60
ROE	6.94	(24.41)	9.05	9.48
BPS	39,464	29,733	31,661	33,920
DPS	850	850	850	85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걸 cgko@hanafn.com

대상 (001680)**1Q26 Re: 2분기까지 전년 베이스 부담****1Q26 Re: 라이신 역기저 부담**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1조 1,099억원(YoY -1.8%), 570억원(YoY -0.5%)을 시현했다. 식품 및 소재 사업부 모두 탑라인이 부진했다. 식품 영업마진은 원가 절감 노력 기인해 YoY 개선되었으나, 소재는 라이신 역기저 및 시장 부진으로 YoY 하락했다.

① 식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385억원(YoY 1.5%), 382억원(YoY 13.7%, OPM 6.0%, YoY 0.7%p up)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3Q25 축육 양수효과 및 선물세트 반영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에 그쳤다. 내수 매출이 YoY 2% 증가에 그친 가운데, 수출이 YoY -3.0% 감소했다. 참고로 1분기 가공 수출액은 778억원을 시현했다. ② 소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2,550억원(YoY -10.5%), 75억원(YoY -67.7%, OPM 2.9%, YoY 5.2%p down)을 기록했다.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분당 판매가 YoY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이신은 시장 악화로 YoY 적자 전환했다. 라이신은 1Q25 유럽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로 베이스가 높다. 2분기까지도 베이스 부담이 다소 존재한다. ③ PT인도네시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760억원(YoY -13.3%), 77억원(YoY 51.0%)을 시현했다. 전분당 경쟁 심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공정 개선 및 판촉 효율화 통해 손익은 개선되었다. 대상베트남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39억원(YoY 2.3%), 12억원(YoY -47.8%)을 기록했다. 김 등 주력 상품 경쟁 심화에 따른 판촉 증가로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2분기까지 소재 전년 베이스 부담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1조 1,088억원(YoY 3.0%), 378억원(YoY -7.4%)으로 추정한다. 2분기도 전년 높은 베이스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곡물가 상승(대두박) 및 북미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과세 부과 감안시 라이신 시황은 QoQ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한다. 하반기 중국 돈가도 업사이클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연말 갈수록 바이오 이익 기여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반기는 YoY 증익 가능

2분기까지는 전년 높은 베이스가 부담이며 원부자재 관련 부담도 가중되기 시작한다. 다만, 소재가 하반기부터 라이신 시황 개선에 따른 기저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연결 손익은 YoY 증익이 기대된다.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6배에 불과해 밸류에이션은 부담 없다.

2026년 6월 5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목표주가(12M) 67,000원
현재주가(6.04) 49,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639.41
52주 최고/최저(원)	64,400/21,850
시가총액(십억원)	9,702.0
시가총액비중(%)	0.14
발행주식수(천주)	196,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423.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4.8
외국인지분율(%)	39.43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SDI 외 6인	20.63
국민연금공단	7.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0,210.9	11,636.7
영업이익(십억원)	879.6	1,023.3
순이익(십억원)	722.5	843.0
EPS(원)	3,600	4,206
BPS(원)	27,113	30,545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9,966.6	9,028.8	9,425.2	11,226.4
영업이익	971.6	792.1	802.2	932.5
세전이익	903.8	830.4	874.5	1,002.2
순이익	756.9	617.5	654.3	749.3
EPS	3,862	3,150	3,339	3,823
증감율	0.42	(18.44)	6.00	14.50
PER	4.29	7.63	14.76	12.90
PBR	0.77	0.99	1.84	1.66
EV/EBITDA	0.24	2.01	7.29	5.74
ROE	19.65	13.76	13.11	13.53
BPS	21,591	24,187	26,736	29,769
DPS	660	790	790	79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삼성E&A (028050)

가스(LNG)와 탄소중립을 위한 여정

가스(LNG): 기회는 있다

LNG액화플랜트는 그동안 유럽EPC와 일본EPC의 독무대였지만, 삼성E&A가 진출할 기회가 있다.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이러한 기회는 더 커졌다고 본다. 기존 북미와 카타르의 시장에서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와 아프리카로의 투자 확대가 나타나면서 수행할 기업 대비 발주 수요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E&A는 LNG액화의 수행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유사한 프로젝트(가스 전처리시설, NGL, 저장탱크, 에틸렌 액화 공정 등)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틸렌EPC에도 액화공정이 있으며 약 -100~-110도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LNG액화의 수행 경험(레퍼런스)이 미미하다보니, 우선적으로 대형LNG프로젝트는 레거시 EPC와의 JV를, 중소형LNG는 기술 기반 파트너와 함께 하여 수주를 추진한다. 허니웰과의 그동안 수행한 석유화학 공정의 레퍼런스를 통해 LNG액화 수주를 타겟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하반기에 허니웰이 에어프로덕트의 LNG 공정 기술(M/S 70% 이상) 및 장비사업부를 인수한 이후로 유효한 전략으로 판단한다. 현재 삼성E&A는 허니웰UOP와 와바시 저탄소 암모니아 프로젝트를, 크레센트 LC CCS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미국에서 진행하는 CCS

삼성E&A가 미국에서 허니웰UOP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프로젝트로 와바시와 크레센트 프로젝트가 있다. 와바시프로젝트는 2025년 10월에 6,800억원에 수주한 EPF 프로젝트로, 연간 50만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167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DOE(미국 에너지부)와 국토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펀드에 참여하는 국가사업이다. 크레센트 LC CCS 프로젝트는 크레센트 미드스트림과 허니웰UOP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994MW 규모의 가스복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탄소를 연간 350만톤 포집, 크레센트 파이프라인망을 통해 탄소를 이동 및 저장한다. 현재 FEED Ph1 수행 중이며, 2029년 운영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67,000원 유지

삼성E&A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는 67,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20.0배를 적용했다. 글로벌 EPC Peer 밸류에이션(15배)에 프리미엄을 적용했다. 최근 미사일, 드론 등 이란 분쟁이 격화되며, 중동 재건의 시점이 뒤로 연기되는 듯한 분위기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삼성E&A의 수주 기회가 커질 것임은 틀림이 없다. 종전 이후의 중동 재건, 이란 개발, 지정학적 에너지 수급 변화에 따른 타대륙의 개발 수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투자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종목으로, 이란과 미국 간 종전이 확실하게 나타난 시점에 매수하기를 추천한다.

이젠 무선통신장비주가 주도주입니다

통신 서비스/장비 Weekly | 202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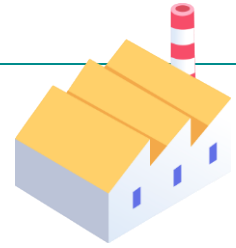
Analyst 김홍식_pro11@hanafn.com

RA 이상훈_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6/2일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었다. 2025년 7월 OBBBA 법안 제정을 계기로 FCC가 주파수 경매 권한을 획득한 뒤 치뤄지는 첫번째 경매라 의미가 크다. 비록 65MHz 할당이지만 1.7/2.0GHz 대역 황금 주파수인데다가 개국 이래 최대인 800MHz 주파수 할당 대장정의 첫 포문을 연 것이라 의미가 크다. 이미 경매 진행 상황이 FCC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뜨거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5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뉴욕 기준 4개 사업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AT&T와 버라이즌 참여가 유력한 가운데 스페이스X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사업자들의 주파수 획득 의지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주파수 경매에 대한 사업자 참여가 활발함에 따라 통신장비 업체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비 업체 선정 및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위한 전초전이 주파수 획득이기 때문이다. 5G SA 투자 본격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첫번째 경매부터 활기를 나타내고 있어 기지국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통신장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 엔비디아 젠슨황 CEO의 내한을 계기로 AI RA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AI RAN 사업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결국 엔비디아-노키아로 이어지는 AI RAN 사업 연대가 국내 사업자 선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인데 아마도 GPU를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노키아와 CPU에 네트워크 솔루션을 강화한 에릭슨과 삼성전자 방식이 경쟁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어떠한 사업자가 점유율을 높게 갖을 것인가도 흥미롭지만 그보다 AI RAN이 통신장비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5G SA/6G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AI RAN이 확대되며 피지컬 시를 완성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미국 신규 5G 주파수 경매 돌입, 국내 AI RAN 사업 정책 본격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통신장비주들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일부에선 가격 부담을 토로하는데 이제 2차 상승의 시작이라는 판단이며 아마도 실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2027년 봄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AT&T에 이어 버라이즌도 CAPEX 상향 조정에 돌입할 것이며 스페이스X의 지상파 투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력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통신장비 매수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 결국 국내에서도 신규 주파수 할당을 통한 투자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3대 강국이라는 큰 비전을 제시했지만 아직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결국 국내에서도 AI RAN 육성을 위한 5G/6G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서는 SKT를 최선호한다. 3사 중 유일하게 2026년 이익/배당 모멘텀이 존재하며 AI RAN 사업 본격화, 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8년 도와 같이 국내 통신장비주 열풍이 SKT 매수세 확산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통신장비 업종에선 미국 주파수 경매 수혜주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한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진출을 염두에 둔 KMW와 RFHC, 후지쯔의 AT&T 벤더 선정에 고려한 HFR 매수를 추천한다. 초기엔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지국 장비 업체에 집중 투자하고 점차 망테스트 시험장비 업체인 LIG아큐버, 인빌딩 장비 업체인 쉘리드로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천한다.



승자가 없어지는 전력시장

유틸리티 Weekly | 2026.06.05

Analyst 유재선_jaeseon.yoo@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7.8% 하회했다. 3일 증가 기준 WTI 99.8달러/배럴(WoW +8.0%), 미국 천연가스 3.3달러/mmbtu(+7.2%), 아시아 LNG 현물 18.8달러/mmbtu(+3.2%), 호주산 유연탄 146.3달러/톤(+11.0%), 원/달러 환율 1,534.8원(+2.2%)을 기록했다. 주요 국가 비축유 감소와 여름철 냉방 수요를 감안하면 원가 지표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 6월 LNG 연료비단가가 전월대비 7.0% 상승한 136.24원/kWh를 기록했다. 일별 SMP는 6월 들어 kWh당 120원대 중반 수준을 기록 중이나 예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특별히 낮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공급능력이 점차 늘어나겠지만 여름철 더위가 강해질수록 냉방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6월 SMP는 kWh당 130원대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언론사를 통해 LNG 도매가격 상한선 설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언론보도에서 직도입 발전사에게도 가스가격 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특이한 부분이다. 기후부가 발전용 가스상한제를 추진한 바 없다고 보도자료로 대응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실화될 여지는 낮다. 과거에도 SMP 상한제 시행, 중단, 철회 등의 이슈가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되었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사례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 시행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가능성의 영역으로만 남겨둬야 하는 시점이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 경계심이 반복되는 현재 상황은 섹터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 아직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가스가격상한제는 최종적으로 전력도매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SMP 상한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상한 규제의 출발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시작하는지 전력거래소로부터 시작하는지의 차이만 존재한다. 가스가격상한제는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발전용 천연가스 미수금 증가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가스가격상한제가 시행되어 발전용에서 미수금이 누적되더라도 민수용 미수금과 마찬가지로 회계상으로는 세전이익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여부가 한국가스공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기후부 장관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러우 전쟁 당시 일부 민간 LNG 업체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지만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적절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폭리가 아닌 적정 이윤을 규제로써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상한제, 사후정산제 등 표현 방식 또는 제도 관련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부재한 모습이다. 당시 일부 직도입 발전사의 LNG 카고 매각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SMP 상한제 시행 직전에도 SMP가 200원/kWh까지 상승하면서 발전사의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던 바 있다. 물론 과거처럼 극단적인 숫자를 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나 당시와 유사한 방향으로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예방주사를 놓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사업자가 불리해지면 심판이 규칙을 바꾸면서 경기에 개입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 과연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4일 증가 기준 24,950원으로 전주대비 9.7% 상승, YTD 139.9%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SGC에너지(Top Pick): 데이터센터 사업 진행 관련한 시장 소통 진행 예정. 중장기 수익 기여 속도에 관심
- SK가스(Top Pick): 울산GPS 매각 등 당기순이익 개선 여지 존재. 기말 DPS 상향 가능성 대비 필요
- 한국전력: 정부의 도매요금 통제 가능성 시사는 실적 하한선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개념. 실적 개선 포인트는 아님

2026년 6월 5일 | 산업분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4일

팬오션(028670)

BUY | TP 9,000원 | CP 5,160원

HMM(011200)

Neutral | TP 21,500원 | CP 19,6원

운송

전쟁의 끝이 보인다, 해운주에게는 기회의 장

호르무즈 내 고립 선박들을 모두 빼내는 데만 한 달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된다면 실질적으로 통항 정상화까지의 시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호르무즈 내 고립 선박은 약 2,000척으로 추산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정상시 일간 최대 140척)을 감안하면 고립 선박을 빼내는 데만 약 한달이 소요된다. 또한 400여 척이 호르무즈 인근에 대기 중인데, 대기 선박이 호르무즈 내로 완전히 진입할 때까지도 6일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항 재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고 시도해도 순수 대기 기간만 40일 이상이며, 실제로는 선적 기간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원유 공급 공백은 일간 600만 배럴 내외 추산

최근 사우디의 양부항과 UAE의 푸자이라항이 대체 선적지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은 약 1,380만 배럴/일 이었는데, 현재 양부항/푸라이라항을 통해서 일간 약 450만 배럴이 대체되고 있고, 중동 이외 국가(미국 등)들도 일간 수출량을 330만 배럴 가량 늘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원유 수출량 중 공백은 일간 600만 배럴 수준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호르무즈 통항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양부/푸자이라/미국 등에서의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DI는 우려 크지 않다

종전 이후 벌크선/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벌크선의 경우 중동 내 재건수요라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남아있고, 전쟁 이전에도 운임지수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며(중국의 철광석 수입량 증가+톤마일 증가+공급 제한적 증가) BDI의 상승 요인이 전쟁 이후에도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전쟁 이후 재고 확보 수요가 촉발되었고, 벙커유 서차지가 4월 이후 본격 부과되며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전쟁 이후 원재료 가격 하락을 기다리며 물동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벙커유 가격도 전쟁 종식 이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벙커유 가격 조정에 따른 조정 국면은 있겠으나, 벌크선의 경우 낙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탱커선 업사이드가 열려있고, 벌크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인 팬오션을 운송주 내 Top Pick으로 유지한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2026년 6월 5일 | Global Equity

Broadcom(AVGO.US)

높았던 기대치

FY2Q26 Review: AI용 네트워킹 비중 확대

Broadcom은 회계연도 26년 2분기 매출액 222억 달러(YoY +48%, QoQ +15%), Non-GAAP 기준 EPS 2.44 달러(YoY +54%, QoQ +19%)를 기록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부합, EPS는 2% 상회했다. AI 반도체 및 네트워킹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솔루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 150억 달러를 기록했고, 컨센서스 대비 부합했다. 이중 AI 반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한 108억 달러를 달성했다. AI용 네트워킹 매출액 비중이 전분기 30%에서 이번 분기 40%로 확대되면서 AI 반도체 성장에 기여했다. 비AI용 반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한 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컨센서스 대비 1% 하회했다.

FY3Q26 가이드نس: AI용 반도체 매출액 가이드نس가 컨센서스 하회

회계연도 26년 3분기 가이드نس로 매출액 294억 달러(YoY +84%, QoQ +33%), 매출총이익률 74%(YoY -4.4%p, QoQ -3.1%p), 영업이익률 67%(YoY +1%p, QoQ 플랫)를 제시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3% 상회, 매출총이익률은 1%p 하회, 영업이익률은 부합했다. 마진이 낮은 AI용 반도체 매출 확대로 인해 매출액은 상회했으나 매출총이익률은 하회했다.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부합했다. 세부적으로, AI용 반도체 매출액 가이드نس는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한 160억 달러를 제시했다. 컨센서스 대비 7% 하회했다. AI용 반도체 매출액이 컨센서스 대비 하회했음에도, 비AI용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가이드نس가 컨센서스 대비 각각 7%, 17% 상회하면서 전사 매출액은 3% 상회했다.

AI용 반도체 연간 가이드نس도 컨센서스를 하회

Broadcom은 하반기 AI용 반도체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 2배 증가하면서, 연간으로 56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제시했다. AI용 반도체 매출액의 연간 컨센서스인 575억 달러를 3% 하회하는 가이드نس이다. AI용 반도체에 대한 회계연도 3분기 및 연간 가이드نس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애프터 마켓에서 약 14% 하락했다. TPU 공급 논의가 2027년을 넘어 2028년까지 진행 중이기에, 수요 감소보다는 컨센서스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Broadcom의 하반기 컨센서스는 지난 분기 실적발표 후 대폭 상향 조정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던 추세이다.

XPU 사업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Broadcom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XPU 사업이 랙 사업이 아닌 칩 단위 사업임을 언급했다. 현재 GPU 업체들은 칩을 넘어 랙 단위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네트워킹 등 랙 시스템에 필요한 기타 칩 수익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Broadcom이 XPU가 랙이 아닌 칩 단위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네트워킹 영역에 대한 점유율 하락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Google 등과의 장기공급계약 등으로 인해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있는데, 해당 물량들은 2027~2028년에 출하될 것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기대감이 일부 소멸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락은 AI 반도체 수요 둔화보다는, 단기 실적 기대치가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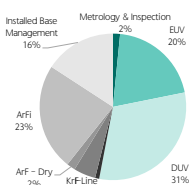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489 USD
CP(6.4) 479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www.broadcom.com		
시가총액(십억USD)	2,269.0		
시가총액(조원)	3,471.4		
52주최고/최저()	495/241.11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	10.23		
블랙록	8.1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3.8	25.9	83.6
상대	9.3	15.6	57.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51,574	63,887	103,773	164,888
영업이익	13,463	25,484	68,060	107,065
순이익	5,895	23,126	55,430	89,969
EPS(USD)	4.9	6.8	11.1	18.2
EPS(YOY, %)	15.3	40.0	62.6	63.8
ROE(%)	12.9	31.0	55.9	62.2
PER(배)	64.5	69.8	43.2	26.4
PBR(배)	11.7	21.6	21.5	13.2
배당률(%)	1.2	0.6	0.6	0.7

자료: Broadcom, Bloomberg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ug1019@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1	317,000	351,500	10.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현대차 (005380.KS)	6/1	723,000	700,000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와 인센티브 부담에도 HEV 비중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되며 제품 믹스 개선 지속 단순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AI 프리미엄 구간 진입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6/1	458,000	422,000	-7.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S 출하 증가와 AMPC 증가 효과 맞물리며 3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 예상 ESS 시장 확대와 빠른 CAPA 증설에 따른 2028년 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 유효
HD현대중공업 (329180.KS)	6/1	696,000	651,000	-6.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건조 Mix 중 저마진 상선 비중 높아 향후 개선 여력이 경쟁사 대비 많아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수주를 통해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대 전망
KT&G (033780.KS)	6/1	184,700	175,800	-4.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담배의 두 자릿수 성장과 국내 필연 점유율 상승으로 호실적 기대 자사주 소각·신규 매입 및 배당 확대 기조가 이어지며 모범적 주주환원 부각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6/1	119,800	127,000	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세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중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에치에프알 (230240.KQ)	6/1	31,850	34,000	6.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국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 예정 AT&T의 CAPEX 확대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북미 통신장비 투자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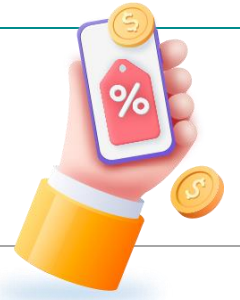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96%	-4.95%p	+83.12%	+5.6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현대모비스 (012330.KS)	6/1	768,000	748,000	-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 부문, 유럽-미주 수요 호조와 판가 인상, 우호적 환율 효과로 26%대 고마진 회복 보스턴다이내믹스향 로봇 핵심부품 내재화로 로봇 현금흐름 가치 부각될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1,716,000	2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공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5/26	129,900	127,000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제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증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11,500	1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298,000	123.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51,500	1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99,200	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02,000	2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173,000	29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3.31%	-22.54%p	+56.72%	-20.7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0,600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255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5,950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825	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37.90	8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재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6.34	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8.71	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8.32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31	6.1	6.2	6.3	6.4	6.5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5월 제조업 PMI (50, 이전치 50.3) 중국 5월 서비스업 PMI (50.1, 이전치 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입 (20.8%, 이전치 16.7%) 한국 5월 수출 (53.2%, 이전치 48.0%) 한국 5월 제조업 PMI (54.8, 이전치 53.6) 일본 5월 제조업 PMI (54.5, 이전치 54.5)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55.1, 이전치 55.3) 유로존 5월 제조업 PMI (51.6, 이전치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CPI (3.1, 이전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서비스업 PMI (50.0, 이전치 50.0)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50.7, 이전치 50.9) 유로존 5월 서비스업PMI (47.7, 이전치 46.4) 유로존 4월 PPI (4.9%, 이전치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4월 소매판매 (0.3%, 이전치 1.2%) 미국 5월 4주차 신규실업 수당 청구건수 (E 215k, 이전치 215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1분기 GDP (E --, 이전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실업률 (E --, 이전치 4.3%)
6.7	6.8	6.9	6.10	6.11	6.12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전기대비/전년대비 1분기 GDP F (E --/--, 이전치 0.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분기 전기대비/전년대비 GDP A (E --/--, 이전치 1.7%/3.6%) 중국 5월 수출 (E --, 이전치 14.10%) 중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5.30%) 미국 4월 무역수지 (E --, 이전치 -\$60.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PPI (E --/--, 이전치 2.3%/4.9%) 중국 5월 PPI (YoY) (E --, 이전치 2.80%) 중국 5월 CPI (YoY) (E --, 이전치 1.20%) 미국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E --/--, 이전치 0.60%/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유로존 5월 기준금리(주요재용자금리) 결정 (E --, 이전치 2.15%) 미국 6월 1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미국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PPI 최종수요 (E --/--, 이전치 1.4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4월 전기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0.8%/2.3%)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A (E --, 이전치 44.8)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